



‘미생’ 윤태호 작가 인터뷰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 역을 맡은 임시완씨가 만화 속 인물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어 최근 가족과 함께 저 또한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어요.”

‘미생’의 작가 윤태호(45)씨 또한 ‘미생 페인’이었다. 현재 모 인터넷 포털에 연재 중인 작품 ‘파인’ 창작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드라마 ‘미생’은 빼놓지 않고 시청하고 있다.

27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는 “미생 열풍은 ‘공감대’ 때문이다”고 말했다. 회사원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희망과 절망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런 삶의 디테일이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는 ‘미생’의 성공을 묻는 질문에는 “뭣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지를 안다면 모든 만화가 성공작이 될 것”이라며 웃었다.

오랜 준비·취재로 젊은이들에 희망과 절망의 민낯 보여줘

광주서 출생 허영만 문화 입문... 힘든 시절 작품 속에 녹여

다만, 성공 비결을 알 순 없지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만화와 영화,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직장 생활이 현실과 많이 다르고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소재를 다루다 보니 감동이 적었어요. ‘미생’에는 실제 직장인들이 힘들어 하는 일상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다. ‘미생’의 창작을 위해 3년 동안은 취재만 했다. 만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바둑과 무역회사의 일상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더욱 생생해졌다.

“이 작품은 워낙 준비기간이 길었고, 한국기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취재했어요. 실

제 회사원의 일상은 직장 커뮤니티 등을 돌며 수많은 글을 읽었고, 실제 종합상사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만화 속 장그래가 요르단문화원을 오가며 요르단의 문화와 경제를 조사한 것처럼 작가 스스로 요르단문화원을 내 집 드나들 듯했다. 요르단 대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생생한 무역현장을 그릴 수 있었다.

또 장그래의 심리 묘사와 가슴을 울리는 대사는 작가의 경험이 묻어 있다. 한국기원 연습생과 가난과 고난의 연속인 만화가 문화생의 삶이 서로 닮아 더욱 현실감 있는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만화도 전문적이라고 하면 바둑도 수련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화와 바둑은 비슷한 정서가 있고, 장그래의 캐릭터 속

에도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 녹아 있어요.”

1969년 광주에서 태어난 윤태호는 1988년 허영만, 조운학 문하로 만화계에 입문했다. 그의 성공에는 창작에 대한 ‘오기’가 있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노숙할 때 “대학 다니는 애들만 고교 동창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25살까지 만화가로 데뷔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런 힘든 시절의 경험이 만화 속 장그래의 모습에 잘 녹아 있어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었다.

결국, 작가 본인은 ‘미생’의 성공 비결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철저한 준비와 오랫동안 꿈을 향해 달려온 작가의 모습이 만화 속에 가감 없이 그려진 게 정작 ‘미생’을 미생답게 한 셈이다.

이처럼 작품을 위한 취재와 준비는 철저한 윤태호지만, 정작 본인은 바둑을 두지 못한다. 그는 “바둑은 아마 10급 정도

이며, 아예 못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소개했다.

만화 속 등장인물과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배우가 너무 많았다는 ‘미생 페인’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놨다.

“드라마와 만화의 ‘싱크로율 10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외형이 닮은 것보다는 만화 속 캐릭터의 본질적인 성향이 드라마에 잘 형상화 된 것 같아요.”

재미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적이지만 또 하나의 즐거움인 스포일러(spoiler)도 빼놓지 않았다.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사랑 코드가 드라마에서는 그려질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만화 미생에서 다뤄지지 않은 러브라인은 없을 겁니다. 무리한 설정보다는 원작에 충실한 대신, 새롭게 해석하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생 ‘열풍’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힘든 부조리한 사회 ‘아직 살아있지 못한’ 직장인들의 서글픈 공감

윤태호 웹툰

만화·TV 드라마 인기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떠넘기고 생색내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만 머슴처럼 죽도록 일하고, 성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가로채기.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눈 앞의 잘못된 인정하지 않는 악랄한 상사. 출세를 위해 남을 헐뜯고, 내시 마냥 아부하기. 남을 낮추기 위해 소문을 퍼뜨리고, 권력자에게 개처럼 빌붙기. 학연·지연의 울타리 안에서 동료 왕따 놓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직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다. 꿈이 좌절된 뒤 무역회사에 첫 출근한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 직장의 모습이기도 하다.

광주 출신 만화가 윤태호의 원작 만화 ‘미생’과 같은 제목의 드라마 ‘미생’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생’은 누구나 한 번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일상을 다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미생’은 만화의 기상천외한 상상력도, ‘직장 드라마’의 현실과도 같은 사랑 이야기도 없이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 같은 ‘인기 요소’ 없이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담았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미생에 출연 중인 강하늘, 임시완, 이성민, 강소라.

책 판매 100만부 돌파 드라마 시청률도 상승세 명장면 강한 울림 ‘미생 페인’까지 생겨

최근 만화 ‘미생’ 시리즈가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미생을 출간한 위즈덤북스는 27일 “지난해 10월 전9권으로 완간한 미생은 지난 26일까지의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100만부를 넘었다”고 밝혔다.

tvN 드라마 ‘미생’도 한창 탄력을 받은 모습이다. 시청률이 4%대까지 내려앉은 KBS 2TV ‘아이언맨’을 비롯한 지상파 드라마의 계속되는 부진과 대비된다. ‘미생’은 지난 25일 방송된 4화에서 평균 시청률 3.6%, 최고 시청률 4.9%를 기록했다.

이 만화는 한 인터넷 포털에 연재될 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마치 직장 내에서 실제 벌어지는 듯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티즌들이 손 꼽아 연재일을 기다리는 인기 만화가 됐다. 연재 초기 만화 속에 등장하는 무역회사의 업무가 실제와 너무 닮았다는 동종업계의 분석이 겹쳐지면서 더욱 많은 독자를 사로잡았다.

미생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프로바둑 기사를 준비하는 젊은이의 이야기다.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종합무역상사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만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명장면’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미생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만화와 드라마를 돌려 보는 ‘미생 페인’이 생겨날 정도다.

주인공 장그래는 프로바둑 기사로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했다면 너무 슬퍼진다”고 말한다. 열심히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를 여실히 비판하는 장면이며, 이는 많은 독자와 시청자의 공감을 샀다.

한국기원 연습생 시절의 장그래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이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온 학생과 직장인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장그래 혼자만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사회와 직장 내에서 느끼는 고립과 외로움, 흔들리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잘 형상화된 이 장면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전했다.

또 직장 생활을 흑과 백이 사활을 걸고 다투는 바둑에 비유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 바둑의 신기원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1989년 조훈현-네웨이펑 9단과의 결승 대국을 이야기 전개와 절묘하게 겹쳤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만화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

피노키오 PINOCCHIO

Music by Nodar Tchanba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14. 11. 30(일) 11시, 15시

TICKET

R 30,000 / S 20,000 / A 10,000

주최 : B 서울발레단

주관 : 광주일보 | 문화공방디케이비(주)

후원 : B 한국발레재단

예매 : 인터파크 ticketlink

문의 : 062) 523-0333

입장 : 만 36개월 이상